

# SETUP 2022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 SETUP 202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액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당클매다



## 국립극단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원작 박상영

각색 김연재

연출 임지민

※ 본 공연은 소설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작 박상영, 출판 문학동네)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본 공연은 2020년 (재)국립극단의 창작 쇼케이스를 통해  
개발되어 2020년 10월 10일 낭독회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2021년 4월 16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기획초청

액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작·연출 정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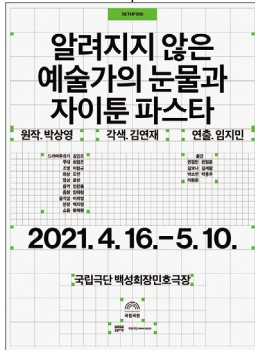
당클매다

연출 고동욱

일정 ————— 2021년 4월 16일(금) — 5월 10일(월)

장소 —————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제작 ————— (재)국립극단



각색작가의 글 ————— 김연재 ————— 2

연출가의 글 ————— 임지민 ————— 4

줄거리 ————— 7

작품해설 ————— 김민조 ————— 8

출연진 ————— 10

연습스케치 ————— 12

스태프 프로필 ————— 14

만드는사람들 ————— 16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하기에 앞서, 쿼어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성애 중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쿼어의 사랑 이야기이며 쿼어의 꿈 이야기이고 마침내 도달하는 비뚜름한 자기 긍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남성 동성애자 화자의 목소리와 시선을 통해 세계를 그려나갑니다. 저는 자신의 언어로 세계를 해석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게이 화자의 발화를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1인칭으로 쓰인 원작에서의 주인공 ‘나’를 ‘그’로 변환하지 않았습니다. 희곡에 표기된 인물의 이름 또한 ‘나’였습니다. 연습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꼭 ‘나’가 된 듯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왕샤를 만났을 때”, “내가 화천 영화제에 갔을 때”처럼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저는 적어도 이 공연에서는 쿼어 인물이 대상화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어떠한 간에 극장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각색 과정에서 또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나’ 외의 여러 인물들에게 구체적인 삶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삶이 사회적 담론을 경유하여 관객들에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를테면 자이툰 부대에 파병되었던 당시 청년들이 일종의 생명수당처럼 받은 파병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 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선을 인물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의 긴장 속에서 무대에 드러내고 또 감추는 작업을 했

연극-[작] <매립지>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위치와 운동> <플라 목>

<배종옥, 부득이한> <우리가 고아였을 때>

[각색]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김신록에 피크소, 870x626cm>

[공동구성] <모던걸타임즈>

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자라는 여성 인물에 관해서는 게이 사회에 반쯤 소속되어 있는 지지자로서의 이성애자 여성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부장적 위계와 차별에 분노하며 동지애를 나누다가 ‘나’가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대학 친구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심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저 그냥 젊은 사람이 술 먹고 섹스하는 영화 만들고 싶었어요.”라는 ‘나’의 말처럼 유쾌하고, 대단한 포부로 시작했으나 술이 다 깨버린 새벽처럼 해쓷하면서도 호기롭습니다. 처음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을 때 저는 좀처럼 진담이라고는 하지 못하는 슬픈 광대의 랩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다른 소리를 하자면, 몇 년 전 합정에서 열린 서울 쿼어 퍼레이드 후원 주점에 갔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는데 엄청난 소음 속에서 책에 사인을 해 주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술집에서 싸인회를 하지, 하고 가우뚱거리며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박상영 작가님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왠지 반가웠지요. 작품 속에서 주인공 ‘나’는 시종일관 농담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던지는 농담은 그가 쟁취한 것입니다. 누군가 쟁취한 농담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최근 너무나 슬픈 죽음이 많았습니다. SNS 피드에 사진이 뜨기 전 잠시 검은 화면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스쳐갔던 동료들에게 아직 안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안부 인사를 건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퀴어들의 더 다양한 목소리가 극장에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One of them.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

같이 사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말일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말일까.

이 작품은 주인공 ‘나’의 이야기이다.

극 속에서 ‘나’는 6명 속에 있기도 하고, 3명 속에 있기도 하고, 홀연히 혼자 있기도 하고,  
수십 명 속에 존재하기도 한다.

어떤 순간이든 나는 자신을 바깥에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자기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았다

‘우리’는 같은 공연을 보았다

‘우리’는 같은 팀이 되었다...

매 순간 자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각자’가 얼마만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우리’라는 것은 찰나라도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연출\_임지민 Lim Ji-min

연극—〈집에 사는 몬스터〉〈타이니 슈퍼맨션〉

무용—〈BALL ALIVE〉

기타—〈내 안의... 그로테스크〉〈These Things Happen〉〈조안나 프로젝트〉

수상—2019 제40회 서울연극제 '대상' 〈집에 사는 몬스터〉

## 공연과 거리두기.

나는 4:3의 프레임 안에 세상을 담는 것을 꽤 좋아한다.

그런데 4:3의 프레임 안에 담긴 콘텐츠를 보는 행위를 자주 하지 않는다.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이 더해져 온택트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온라인 콘텐츠로 공연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 공연은 ‘극장 공연’이다.

온라인으로 일부 대체될 수도 있는 시기에 소중하게 올리는 극장 공연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극장 공연’의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관객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였다.

온택트란 개념이 생겨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최소 1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가 암묵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거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떤 관계성으로 만나면 좋을까.

처음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평평하고 커다란 운동장에 / 사람들이 서로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 한 칸씩 자리 잡았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평등하게 가로-세로로 분포된 사람들이 있고,

—한 칸에서 올려다본다면 각자에게 아래-위로 평 트인 하늘이 있다. 각자의 ‘멍—’의 공간.

평평한 맨땅만 있으면 모두가 함께하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는 참 재미있는 구조이다.

‘모여서 앉기’보다, ‘모아서 보여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누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말고, 나만 볼 수 있는 프레임에서 내 맘대로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





## 다시, One of them.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나의 첫 전공인 ‘인류학’이 자꾸 되새김질 되었다.  
‘상대성’과 ‘다양성’.

연극을 만드는 일은 각자의 머리들(난 각자의 우주라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이 만나서 상충하고  
깨지고 다시 자기 우주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작업 기간 동안 더 의식  
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상충하는 순간들은 각자의 머리가 흔들  
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했다. 어차피 다른 우주들이 만나는 데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임  
을 아는 사람들, 오히려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배우&스텝들을 만났다. 그리고 각자의 우주  
를 각자가 책임지는 의무감이 더 단단해졌다.

각자가 살아냈을 때, 비로소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각자의 삶이 각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중에— 그 속에서 경험하고 싶었다.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조건으로, “최대한”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한 바람이 관객에게도 전이되어,  
극장이라는 평평한 운동장의 한 칸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때 칸을 꿈꿨지만 짝퉁 취급을 당한 채 영화관에서 밀려난 무명 감독 '나'는 대기업 영화사업부에서 일하는 동창 '미자'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는다. 용건은 작고한 한 영화감독의 회고전 GV(관객과의 대화) 사회를 봐달라는 것. 공짜 관람권에 혹해 수락한 '나'는 자이툰 부대 복무를 함께한 '왕샤'를 불러 영화관에 가는데...

The protagonist is an unknown film director who used to dream of getting to Cannes but has yet to make a name for himself. He gets an unexpected call from his college friend Mija, who works for a large film company. She tells him about a retrospective on a film director and asks him to participate as a moderator in a Q&A. He accepts her offer of free tickets and goes to the cinema with Wangsha, who was posted at the Zaytun Division with him before.



## 1

연극은 종종 삶과 대비된다. 산만하고 초점 없는 삶, 목적도 설계도 없이 현재의 흐름 속에 내맡겨져 있는 삶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삶을 해석하고 서사화하는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면 연극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조형화된 삶의 체험이다. 마디가 있고 플롯이 있고 결말이 있는 삶. '작품'으로서 감상될 수 있는 삶. 그런 의미에서 어두컴컴한 블랙박스 극장은 삶의 거울인 동시에 탈출구로서 기능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조형하는 연극은 바로 그 조형의 욕망으로 인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부터 멀어진다. 만약 이 역설 자체에 대해 연극이 말할 수 있다면, 유동하는 현재와 불확실한 삶에 대한 감각을 포기하지 않는 연극을 꿈꾼다면, 그 연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연극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이름과 자이툰 파스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질문들이다. 연극은 대본상 '나'라고 표기되어 있는 주인공의 관점과 서술을 따라간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한 시점에서 과거를 조망하는 회상적인 서술자가 아니라 자신이 경과하고 있는 극적 현재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재현하고 해석하고 서사화하는 과정 속의 서술자에 해당한다. 이번 공연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 또한 산만하고 초점 없는 삶의 풍경들 사이를 달려나가는 인간,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구성해나가는 퍼포머의 자유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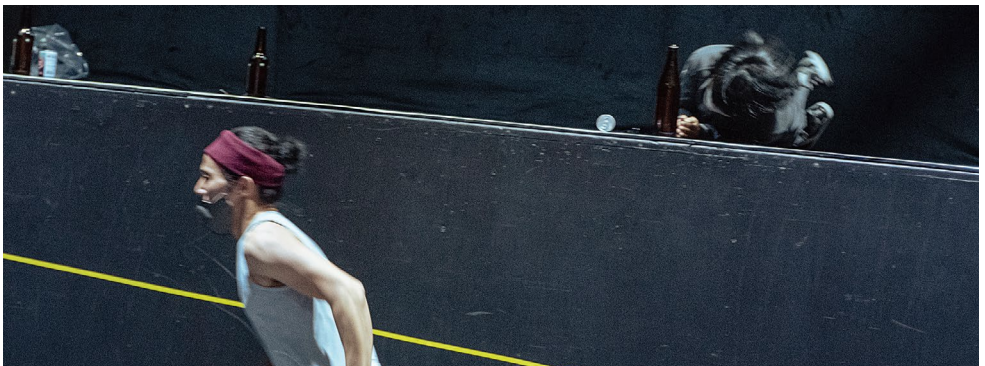
❖ 김건형, 『2018 퀴어전사 — 前史·戰史·戰士』, 『문학동네』 2018년 가을호, 2018.

❖ 김민조, 『비로소 보통의 퀴어들 —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낭독 쇼케이스 공연 드라마투르그 노트』, 『공연과이론』 2020년 겨울호, 2020.

## 2

박상영 작가의 원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이름과 자이툰 파스타>(2017)는 2010년대 한국 퀴어문학장의 진화와 확장에 중요한 모멘트를 제공한 작품이다. 문학평론가 김건형은 한국 퀴어문학의 계보를 구성하고 심문하는 글에서 이 작품이 퀴어 예술가의 자기 재현, 혹은 ‘메타 재현’의 전략을 경유하여 이성애 사회의 대상화된 퀴어 재현에 응수하고 있음을 짚어낸 바 있다.❖ 이처럼 퀴어에 대한 규정을 생산하는 규범, 언어, 환경 자체를 퀴어가 심문하는 것. 또는 심문 과정 자체를 서사화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동시대 퀴어예술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이툰 파스타>는 ‘세상에 없는 퀴어영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던 주인공이 퀴어의 자기재현이라는 과제에 무릅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겪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작을 연극화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었던 것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실패의 서사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자신의 삶이 장르적 클리셰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그러한 클리셰들의 윤곽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불현듯 자각하는 인물이다. 그처럼 삶과 영화의 거리 속에서 진동하며, 고유한 ‘나’에 대한 환상을 짐작처럼 옮기고 부리는 한 퀴어 예술가의 모습은 그가 완성하지 못했던 영화의 일부로 느껴지기도 한다.❖ 실패와 성공의 프레임 너머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발언권을 얻는 보통의 삶, 보통의 퀴어들을 위한 연극이 관객분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기를 소망한다.





## 출연진



**권겸민** Kwon Kyeom-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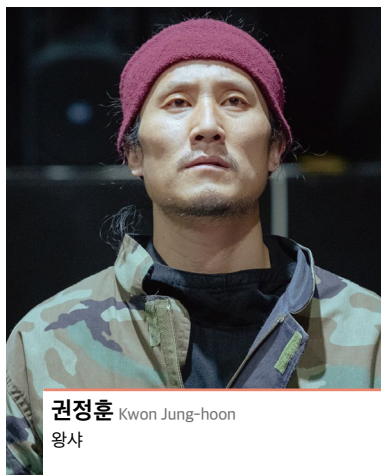
나

연극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그날이 올텐데〉  
〈가미카제 아리랑〉〈처의 감각〉〈하나코〉〈단테의 신곡〉  
〈레이디 맥베스〉〈짬뽕〉〈있었다〉〈개〉 외

영화

〈렛 미 아웃〉〈네모난 원〉〈청춘예찬〉



**권정훈** Kwon Jung-hoon

왕사

연극

〈태담〉〈용선〉〈Ciphers-암호문〉〈FARM〉〈9월〉  
〈구멍을 살펴라〉〈가해자탐구\_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  
〈킬링 타임〉〈commercial, definitely -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곡비〉〈리어왕〉 외

수상

2020년 제57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FARM〉

**김보나** Kim Bo-na

미자



연극

〈파우스트 엔딩〉〈햄릿〉〈나의 음식 분투기〉〈동양극장 2020〉〈땃글부대〉〈햄릿-디 액터〉〈카르멘〉〈응, 잘가〉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외



**박용우** Park Yong-u  
애니메이션 전공 B / 오감독 / 샤넬 아들

연극  
 〈햄릿〉 〈스웨트 SWEAT〉 〈잘자라랄라〉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그들의 적〉 〈세일즈맨의 죽음〉 〈타조소년들〉  
 〈외계인들〉 〈부산 밤바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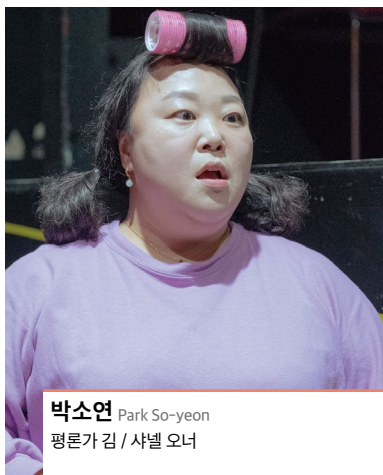
**김세환** Kim Se-hwan  
서양화 전공 C / 프로그래머 Q

연극  
 〈파우스트 엔딩〉 〈스웨트 SWEAT〉 〈불꽃놀이〉  
 〈버닝필드〉 〈스푸트니크〉 〈자본〉 〈록앤롤〉 〈향수〉  
 〈4Four〉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외



**이원준** Lee Won-joon  
산업디자인 전공 A / R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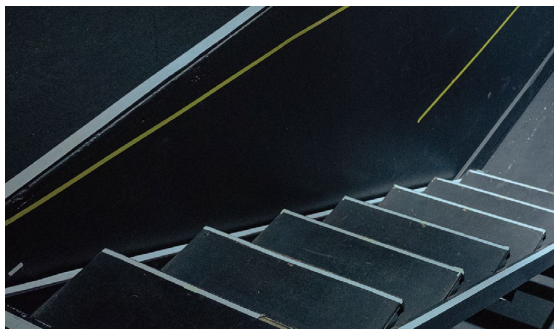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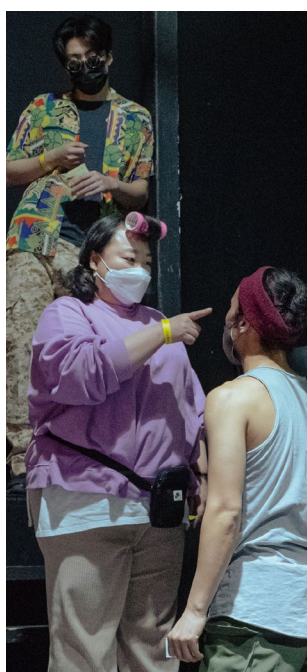
연극  
 〈파우스트 엔딩〉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동양극장  
 2020〉 〈2호선 세입자〉 〈연애플레이리스트〉 〈망원동  
 브라더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아단성〉  
 〈죄와 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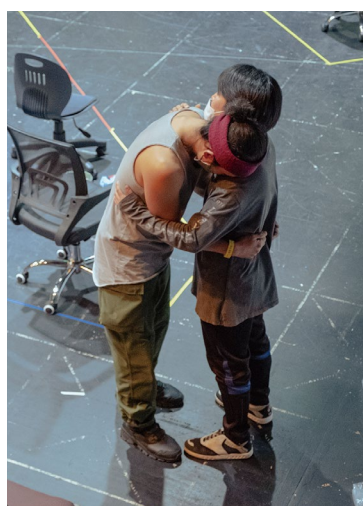
**박소연** Park So-yeon  
평론가 김 / 샤넬 오너

연극  
 〈햄릿〉 〈불꽃놀이〉 〈화전가〉 〈두뇌수술〉 〈영지〉  
 〈분노하세요〉 〈페스트〉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청춘예찬〉 〈몽연〉 외

# 연습스케치









**원작—박상영** Park Sang-young

소설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대도시의 사랑법』

에세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수상 2019 제11회 허균문학작가상 「우럭 한점 우주의 맛」  
2019 제10회 젊은작가상 대상 「우럭 한점 우주의 맛」  
2018 제9회 젊은작가상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016 문학동네 신인상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

**각색—김연재** Kim Yeon-jae

프로필 2페이지

**연출—임지민** Lim Ji-min

프로필 4페이지

**드라마투르기—김민조** Kim Min-jo

연극 〈괄호는 괄호와 괄호 사이 괄호가 될 수 있을까〉 〈길〉  
〈스탠드 업, 그라운드 업〉 〈혼자인 양 말이다〉 〈아웃 오브 사이트〉 〈갈끔한 혐오〉 〈블루스가 불렀어〉 〈마트료시카〉 외

**무대—최영은** Choi Young-eun

연극 〈앵커〉 〈박인환, 시를 살다〉 〈오만과 편견〉 〈메리제인〉  
〈MAJORITY\_SOUTH KOREA〉 〈내게 빛나는 모든 것〉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NEVER THE SINNER〉 외  
뮤지컬 〈포미니츠〉 〈편홍〉 〈차미〉 〈LENNY's ADVENTURE〉  
〈설록홀츠: 사라진 아이들〉 〈봄을 그대에게〉 〈안테모사〉  
〈키다리 아저씨〉 〈번지점프를 하다〉 〈베르나르다 알바〉  
〈THRILL ME〉 외

**조명—이현규** Lee Hyun-gyu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섬〉 〈집에 사는 몬스터〉 〈태일〉 〈사이레니아〉 〈연애시대〉 외  
뮤지컬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이블데드〉 〈레드북〉 〈여신님이 보고 계셔〉 〈전설의 리틀 농구단〉 외

**의상—도연** Doyeon

연극 〈오만과 편견〉 〈R&J〉 〈그라운드드〉 〈아들〉 〈집에 사는 몬스터〉 〈아몬드〉 〈어나더컨트리〉 〈아마데우스〉 〈실수 연발〉 〈돈키호테〉 〈페리클레스〉 외  
뮤지컬 〈검은 사제들〉 〈호프〉 〈썸씽로튼〉 〈편홍〉 〈차미〉 〈그림자를 판 사나이〉 〈니진스키〉 〈보디가드〉 〈광화문연가〉  
〈어쩌면 해피엔딩〉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베어 더 뮤지컬〉 〈레드북〉 〈도리안그레이〉 외  
기타 〈섬〉 〈태일〉 〈야진연〉 〈바실라〉 〈단원화무도〉 〈안드로메다〉 〈카르멘〉 〈처용〉

**영상—모션** MOTION

콘서트 〈BTS MAP OF THE SOUL ON:E〉 〈MONSTA X World Tour 'WE ARE HERE'〉 〈SHOW ME THE MONEY CONCERT〉 〈ZICO WITH FANXY CHILD 'Y'〉 〈CRUSH ON YOU TOUR 'WONDERLOST'〉 〈JAY PARK SEXY 4EVA WORLD TOUR〉 〈PARKHYOSHIN LOVERS〉  
〈WANNA ONE [THEREFORE]〉 〈Yerin Back TURN ON THAT BLUE VINYL〉 외  
축제·방송 〈NEW YEARS'EVE LIVE〉 〈SBSMTV THE SHOW〉  
〈DREAM CONCERT〉 〈SEOUL JAZZ FESTIVAL〉  
〈COUNTDOWN SEOUL〉 외

**음악—민찬홍** Min Chan-hong

연극 [음악감독·작편곡] <에스메의 여름> <나무의 아이> <너를 만난다> <구부러져라 스폰> <두근두근 내 인생> 외

뮤지컬 [작편곡] <운달장군 살인사건> <잃어버린 얼굴 1895> <빨래> <렛미플라이> <랭보> <신과 함께\_이승편> <칠서> <힘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더맨인더홀> <포이즌>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외

영화 [음악감독·작편곡] <슬로우 비디오> 외

수상 2016 제5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음악상' <더맨인더홀>  
2010 제4회 더 뮤지컬 어워드 '작사·작곡상' <빨래>

**음향—임태형** Lim Tae-hyung

연극 <39계단> <육 분의 룩> <두 여자> <사나이 와타나베 완전히 빠지다> <버자이너 모놀로그> <타이니 슈퍼맨션> <집에 사는 몬스터> 외

뮤지컬 <설록홀츠 시즌 1, 2> <삼총사> <잭더리퍼> <Rock of Ages> <완득이> <Lion King> 외

콘서트 <질은> <고상지> <강이채> 외

**움직임—이재영** Lee Jae-young

연극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내 일의 내일, 내일의 내 일> <FARM>

무용 <디너> <HIT&RUN> <신체, 파동, 소리> <Best&First-구조의 구조> <이퀄리브리엄> <휴식> 외

기타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막식> 외

수상 201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단체상  
2015 스페인 국제 안무대회 MASDANZA20 'BEST PERFORMER'  
2009 SPAF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댄스컬렉션 '최우수안무상'  
2005 한국현대무용협회 쿤쿠르 '은상'  
2004 전국대학 무용 쿤쿠르 '금상'

**분장—백지영** Baek Ji-young

연극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SWEAT 스위트> <콘센트-동 의> <텍사스 고모> <손님들> <시련> <토막> <이영녀> <단테의 신곡> <반신> 외

뮤지컬 <작은 아씨들> <다윈 영의 악의 기원> <신과 함께\_저승편> <빈센트 반 고흐> <파리넬리> <파가네네> <마리아 마리아> 외

**소품—황혜원** Hwang Hye-won

연극 [소품디자인] <집에 사는 몬스터>  
[시노그래피] <내 안의...그로테스크>  
[무대디자인] <콜라소녀>

뮤지컬 [무대디자인] <야조>

오페라 [무대디자인] <Iliade l'amour>

**조연출—조수잔나** Joe Susanna

연극 [조연출] <밀바닥에서>  
[연출·각색] <블랙코메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고객만족도조사**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권경민 나
권정훈 왕사
김보나 미자
김세환 서양화 전공 C 외
박소연 평론가 김 외
박용우 오감독 외
이원준 산업디자인 전공 A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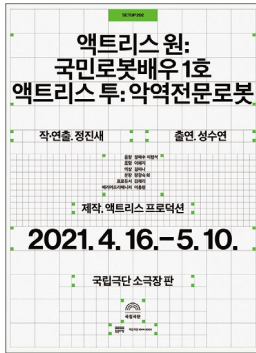
스태프
원작 박상영
각색 김연재
연출 임지민
드라마투르기 김민조
무대 최영은
조명 이현규
의상 도연
영상 모선
음악 민찬홍
음향 임태형
움직임 이재영
분장 백지영
소품 황혜원
조연출 조수잔나
무대어시스턴트 정애슬
의상팀 팀장_이정운 팀원_김소현 최아람
홍신애
자이툰무대 관련 자문 이수영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나혜민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_오퍼레이터 장도희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 오퍼레이터 박기완
영상 오퍼레이터 전형석
무대진행 문성현 유성엽
의상진행 심새늘 최단비
분장진행 오하나 임이윤 전진영
음악조감독_편곡 한소민
연주 기타_박성진 바이올린 심정은
녹음 구자성
녹음장소 사운드 매니아 스튜디오
믹싱_마스터링 한소민
무대제작 서울무대장치
무대장비임차 (주)쇼텍라인
조명장비임차 (주)철삼컴퍼니
음향장비임차 (주)센트럴사운드
의상제작 뽀엿드로
소품제작 섯
조명프로그래머 김종훈
조명팀 신경배 이재민 김도형 유성욱 이상민
전인혜
음향팀 최종수 안세운
소품팀 이송이
홍보_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김유연
마케팅 변정원 김수현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송이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홍보_연습_공연사진 김신중
홍보영상 심하린
스핀오프영상 밤부네트워크
공연영상 HB SOUND&MEDIA
_대표_박용신 제작총괄 이은지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이너 WT
옥외광고 영기획
홍보물 인쇄 인타임
티켓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이민경 임지는 송 술
황지수 김성혜 배연준 김지수 박준은 김나연
최희라 김지윤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프로그래밍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래밍 인쇄 미림아트
기획_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이정민 김철순
제작진행 박서영
제작 (제)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일정 ————— 〈엑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2021년 4월 16일(금) — 4월 25일(일)  
 ————— 〈엑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2021년 5월 1일(토) — 5월 10일(월)

장소 ————— 소극장 판

주최 ————— (재)국립극단

제작 ————— 엑트리스 프로덕션



작연출의 글 ————— 정진새 ————— 2

배우 인터뷰 ————— 김해리 ————— 4

줄거리 ————— 6

스태프 프로필 ————— 8

만드는사람들 ————— 9

일정 ————— 2021년 5월 1일(토) — 5월 2일(일)  
 5월 8일(토) — 9일(일)

장소 ————— 서계동 야외마당

주최 ————— (재)국립극단

제작 ————— EASThug



연출의 글 ————— 고동욱 ————— 10

줄거리 ————— 11

스태프 프로필 ————— 12

만드는사람들 ————— 13



기후위기 시대의 연극을 생각합니다. 인류세 시대의 연극, 포스트휴먼 시대의 연극을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저에게 연극은 ‘이후의 연극’을 고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이후의 연극과 블랙리스트 이후의 연극과 미투 이후의 연극과 코로나 이후의 연극 등등.

현대예술을 하는 창작자로서, 동시대에 대한 인식도, 파악도 매번 늦는 편이기에, 자연스럽게 제가 선택한 전략은 ‘SF연극’을 하면 어떻게든 맞아 가겠지, 하는 다소 나이브한 것이었는데요,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은 후회가 오곤 합니다. 이왕 미래를 예언할 거면 더 정교하게 더 명확히 더 아름답게 할 것을... 언제나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우울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마주하고는 다시 한번 주제파악을 하게 됩니다.

극단 문 드라마 작가

연극—[각색] 〈그림,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허생전-허생처전〉

[작·연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탄소리판〉

〈브레인 컨트롤〉〈엑트리스 원〉〈엑트리스 투〉〈전국싸움대회〉

〈전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외

[드라마투르기] 〈고독한 목록〉

수상—2010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젊은비평가상

극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극중에서 해설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해설자: 인간은 그동안 자신이 너무 대단한 종種이라는 생각에 빠져, 너무나 위대하고 거창한 서사에만 열을 올렸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데만 몰두해왔다. 이 시대 연극이 망해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조잡하고 거칠고 사소한 연극이 필요하다!

극중 인물을 빌어, 제가 하는 연극을 변호하는 순간이어서 다소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굳이 강조하자면,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조하고 거칠고 사소한” 연극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국립극단에서 여러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의 세상이 ‘이후의 연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는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SETUP 202라니 얼마나 멋진 타이틀인가요. (철거의 시간은 다가오지만...)

SF연극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맞으면 맞은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그 예언은 가치가 있겠지요. 그것과 ‘다른’ 의견을 각자가 떠올릴 때, 이후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 일종의 미래감수성이 생기기 때문은 아닐까, 거창하게 생각해봅니다.

국립극단의 로봇연극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즐겁게, 다르게, 틀리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재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엑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는 2년만의 재공연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엑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를 공연할 때는 2019년이었어요. 2020년대가 아직 오지 않았던 그 때 생각했던 것과는 또 지금 달라진 생각들이 있더라구요. 지난 2년을 지내며 생긴 여러가지 변화들을 다시 지금 여기에 어떻게 반영할지, 어떻게 진심으로 전할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공연을 하는 극장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또 새로운 계획들이 필요하여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의 재공연은 사실 매번 그 때 그 곳에서의 초연인 것 같기도 해요. 달라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그 점이 늘 신기하게 느껴지고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즐겁습니다..

**국립극단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실제로 국립극단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신기하고 설레기도 하고요. 작품 속 배경이라고만 생각해서 <엑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초연이 끝난 후, 국립극단에 다른 일로 오게 됐을 때 장난으로 엑트리스 원인 척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도록 좋은 쪽의 부담으로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 작품은 1인극인데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정도로 즐거운 작업인데,**

**배우 입장에서의 1인극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1인극에서 배우가 맡는 배역은 그 작품 안에 등장하는 배역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텍스트 전체' 인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 배역을 연기하는 것 만큼,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에 따른 호흡 운용 등이 중요한데요. 여러 배우가 나오는 공연을 할 땐 보통 한 배우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을 다 말한다거나 이야기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담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되고요. 1인극에서는 그것을 혼자 하기 때문에 작품



출연\_성수연 Sung Soo-yeon

연극-〈아웃오브러브〉〈모탈하고 자빠졌네-악역연기메소드 연습〉〈우리는  
농담이 아니야〉〈엑트리스투: 악역전문로봇〉〈로테르담〉〈엑트리스원:  
국민로봇배우1호〉〈관람모드-보는 방식〉〈러브스토리〉〈연극의 3요소〉외  
〈그녀를 말해요〉〈비포애프터〉〈당신의 소파를 옮겨드립니다〉외

수상-2019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2016 제52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2015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기상

전체를 감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료 배우들과 호흡이 잘 맞을 때, 특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도달한 어떤 지점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연습 과정과 공연 중 느끼는 기쁨이 크거든요. 1인극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좀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엑트리스 시리즈에서는 연극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감각하게 돼요. 호흡을 맞출 상대 배우는 없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조명, 음향, 무대 등과 함께 있으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더 질게 느끼게 됩니다. 관객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더 질게 느껴지고요. 배우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감각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엑트리스가 시리즈물이다보니, 다음 작업을 기대하는 관객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트리스 시리즈는 배우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엑트리스 시리즈는 저에게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에요. 엑트리스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갖는 기쁜 마음은요, 연기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는 고민들을 이 작품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1인 창작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연극과 연기를 하며 갖는 고민들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엑트리스 시리즈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도 혼자만의 생각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음 시리즈를 하게 된다면 그 시리즈의 엑트리스는 어떤 존재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때도 모두와 그 때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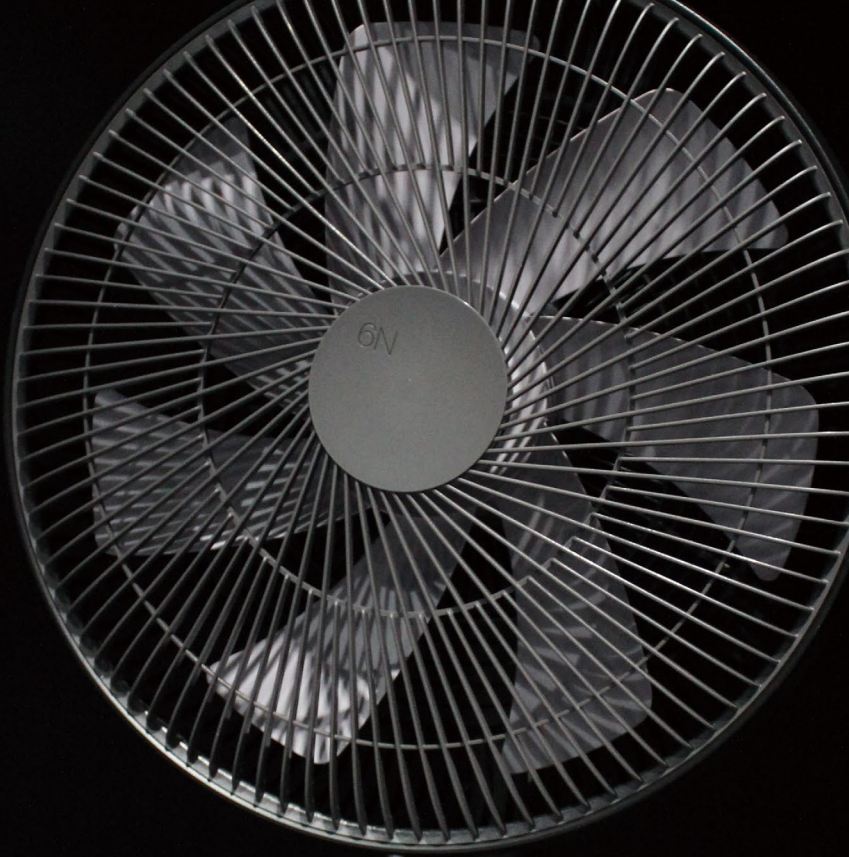
〈액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연기하는 로봇, 액트리스 원<sup>Actress-1</sup>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것은 2029년 2월, 국립극단이 매년 실시하는 국립극단 오디션장에서였다. 왜냐하면, 액트리스 원은 간병로봇 이었고, 그의 옛 주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성수연 선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로봇의 주인, 성수지의 바람대로 액트리스 원은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

**Actress-1: The Nation's No.1 Robot Actor**

The acting robot Actress-1 made a debut in February 2029 at the NTCK's annual audition. Actress-1 used to be a nursing robot—formally owned by Sung Sooyeon, one of the most celebrated actresses in Korea. However, as per the wishes of the robot's current owner Sung Suzy, Actress-1 has not been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 〈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극한 환경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던 로봇, 액트리스 투Actress-2는 국립극단의 무대에 서게 된다. 70년 후, 고고학-인턴 성연수는 자연사박물관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연극'을 발견하게 되는데... 21세기 연극의 묵시록과 22세기 연극의 창세기가 교차하면서, 로봇의 운명은 다시 한번 연기되어진다.

#### **Actress-2: A Robot Specializing in Villain Roles**

Actress-2, a robot designed to perform special tasks in extreme environments, goes on the stage of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Seventy years later, an archaeology intern named Sung Yeonsoo discovers "theater" while organizing some resources at the Natural History Museum. As the Apocalypse of the 21st century theater intersects with the Genesis of the 22nd century theater, the fate of the robot once again unfolds on stage.

작·연출—정진새 Jeong Jinse

프로필\_4페이지

음향—정혜수 Jung Haesoo Eshu

연극 〈아몬드〉 〈요정의 왕〉 〈크리스천스〉 〈4FOUR〉 〈상처투성이 운동장〉 〈목욕합니다〉 〈보더라인〉 〈아들〉 〈이게 마지막이야〉 〈철가방추적작전〉 〈민음의 기원2\_후쿠시마의 바람〉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널 위한 날 위한 너〉 〈브레인컨트롤〉 〈위대한 놀이〉 〈정글북〉 외  
전시 〈Eternal Monologue〉 〈Dynamic E-〉 외

음향—이현석 Lee Hyun-seok

연극 〈레알솔루트〉 〈언젠가우연히새벽에혼자서햄버거먹다가 생각날이야기〉 〈악어시〉 〈숨그네〉 〈춤추며간다〉 〈회색도시〉 외

조명—이혜지 Lee Hye-ji

연극 〈전국싸움대회〉 〈브레인 컨트롤〉 〈의자, 눈동자, 눈먼 예언자〉 〈이방연애〉 〈전 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신토 불이 진품명품〉 〈달랑 한 줄〉 〈사랑연습 갈비뼈타령〉 〈플루토〉 〈당곰이야기〉 〈엑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바리이야기〉 〈물 불 흙 공기〉 〈2021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영역〉 〈달갈의 일〉 외

의상—김미나 Kim Mina

연극 〈아웃 오브 러브〉 〈fucking gender〉 〈모랄하고 자빠졌네〉 〈춤의 국가〉 〈웃기는 어둠〉 〈마른대지〉 〈죽음의 집〉 〈이갈리아의 딸들〉 외  
연희극 〈연희괴담:사자〉 〈하늘로 간 청춘팔〉 〈굿모닝 광대국〉 외

분장—장경숙 Jang Kyoung-suk

연극 〈X의 비극〉 〈조치원 새가 이르는곳〉 〈달갈의 일〉 〈날아가 버린 새〉 〈왕서개 이야기〉 외

프로듀서—김해리 Kim Haeri

연극 〈엑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엑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기타 〈3시에서 3시, 4시에서 4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4〉

배리어 프리 매니저—이충현 Lee Chung-hyun

기타 〈청년협동조합 뒷북〉 〈조금다른운동회〉 〈DMZ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출연
성수연 액트리스 원, 액트리스 투, 해설자 외
스태프
작·연출 정진새
음향 정혜수 이현석
조명 이혜지
의상 김미나
분장 장경숙 전예진
프로듀서 김해리
배리어프리매니저 이충현
배리어프리 자문 강보름
배리어프리 커뮤니티 안정우 이성수 장근영

국립극단
무대감독 김정빈 김태연
무대제작감독 경은주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이병석 박정현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김유연
마케팅 김수현 변정원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승이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홍보·공연사진 김신중
공연영상 영상작업공간틀어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인 WT
옥외광고 영기희
홍보를 인쇄 인타임
티켓 이현아
매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이민경 임지은 송 솔
황지수 김성혜 배연준 김지수 박주은
김나연 최희라 김지윤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프로그램북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
기획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김철순 이정민
제작 액트리스 프로덕션
주최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액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액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고객만족도조사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 (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의 곳을 보고  
 엉터리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곳의 형태도  
 따르지 않고  
 신을 불러내는 연행자도 없습니다.  
 그저 음악이 있고  
 그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빛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희의 비트를 들으며  
 어깨를 들썹일 수 있다면,  
 눈이 부시게 반짝거리는 빛을 보며  
 아름답다 느낄 수 있다면,  
 저희는 이곳이 곳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곳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함께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순간이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음악과 빛이 있는 비현실의 세계 속에서  
 신명나는 곳 한 판을 보고  
 왔구나 느끼신다면 좋겠습니다.



#### 연출\_고동욱 Ko Dong-uk

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아트 그룹 EASThug 대표

창작집단LAS 단원

연출—〈굿, 트랜스 그리고 신명〉〈신명 : 풀림과 맺음〉

영상디자인

[연극] 〈나, 해석: 나로살고저〉〈박인환, 시를 살다〉〈우리별〉  
 〈산책하는 침략자〉〈왕복서간〉

[뮤지컬] 〈월명〉〈적벽〉〈경성 스케이터〉〈난설〉 외

무대디자인

[연극]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뮤지컬] 〈해녀탐정 홍설록〉 외

❖ 당클

제주에서 굿을 할 때 집 안의 중심이 되는 마루의 상단 벽에 선반을 가로로 놓고 양 끝에 줄을 매어 고정시키는 것으로, 신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신의 자리이다.

‘소리로 신을 불러내니 신이 빛이 되어 찾아왔다!’

흔히 ‘굿’하면 떠오르는 변화무쌍하고 전통적인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과 굿의 폭발적인 에너지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표현한 화려한 빛으로 마당을 가득 채운다. 2020년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만났던 ‘하지 맞이 놀굿풀굿’ 쇼케이스 <당클매다>가 야외마당으로 공간을 옮겨 무대의 빛과 재해석된 굿의 음악을 통해 그들의 세계 속으로 관객을 초대하고 그 일부가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When I summoned gods with sound, they arrived as lights!”

The courtyard overflows with modern reinterpretations of the versatile rhythms of *gut* and colorful lights that visually embody the explosive energy and movements of the traditional rites. First introduced online in 2020 as part of the showcase Celebrating the Summer Solstice: Hajimaji Nolgutpulgut, *Dangkeulmaeda* is performed outdoor this time. Through the light and reinterpreted music of *gut*, audiences are invited to become part of the new creative world.

❖ Dangkeul

A sacrificial table placed in the center of the house and used for *gut* on Jeju Island



‘이스트허그EASThug’는 공연예술계에서 무대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로 성장해온 고동욱을 대표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결성된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이다. 그래픽디자이너, 사운드디자이너, DJ, VJ, 금속디자이너, 건축가, 일러스트작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아트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개인의 역량으로 진행되는 작품을 넘어서 ‘집단적 창조’라는 모토 아래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월에 선보인 공연 <굿, 트랜스 그리고 신명>에서 전통 굿의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트랜스 상태로 진입한 연주자의 뇌파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음악—심준보** Shim Joon Bo

2019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 콘테스트 당선

음악 <신명: 풀림과 맺음> <굿, 트랜스 그리고 신명> <전라감영, 빛의 초상화> <64찰나> <움> 외 다수

음향 <951115> <무천> <패스, 킁, 폴, 앤 런 : 동시다발> <시간 물레> 외

**인터랙티브디자이너—김상완** Kim Sang 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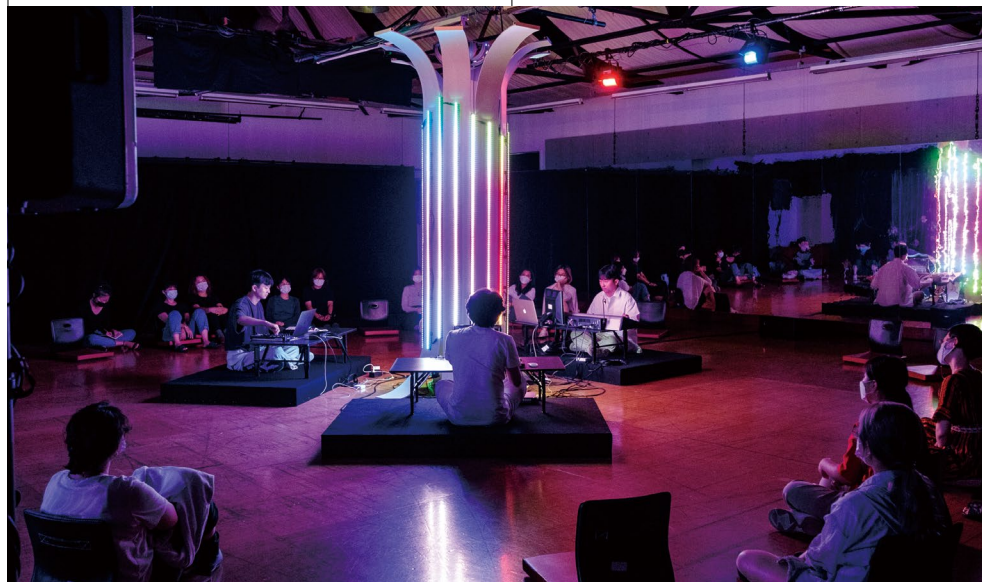
기술감독 <신명: 풀림과 맺음> <커넥팅>

영상 <버닝필드> <당클매다> <해금을 해금하다> <전라감영, 빛의 초상화> 외

**무대—양이삭** Yang Isaac

연극 <환상의 모파상> <헤다가블러> <죄와 벌> <레미프로젝트> <남의 연애> 외

뮤지컬 <차가운심장> <찰리브라운>



	국립극단	
<p>연출 <b>고동욱</b>  음악 <b>심준보</b>  인터렉티브디자인 <b>김상완</b>  무대 <b>양이삭</b>  음향 <b>박상준</b></p> <p>작곡 <b>JNBO Clap! Clap! Genbu JAE SHIK Haz</b></p> <p>무대제작 <b>서울무대장치</b>  장비렌탈 <b>수라이팅 아하랩</b></p> <p>EASThug <b>고동욱 배민호 심준보 조정환</b>  <b>장윤혁 김상완</b></p>	<p>무대감독 <b>김정빈 김태연</b>  무대제작감독 <b>홍영진</b>  조명감독 <b>임수연</b>  음향감독 <b>이병석</b></p> <p>홍보·마케팅 총괄 <b>정용성</b>  홍보 <b>이정현 김유연</b>  마케팅 <b>김수현 변정원</b>  온라인마케팅 <b>오지수 조영채</b>  후원 <b>이승이</b>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b>김보연 김연정</b>  <b>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b></p> <p>홍보·공연사진 <b>김신중</b>  공연영상 <b>영상작업공간틀어</b>  메인디자이너 <b>페이퍼프레스</b>  응용디자이너 <b>WT</b>  옥외광고 <b>영기획</b>  홍보를 인쇄 <b>인타임</b></p>	<p>티켓 <b>이현아</b>  매표안내원 <b>김경은 김인혜 채수환</b>  하우스매니저 <b>이기쁨</b>  하우스안내원 <b>정진영 이민경 임지은 송 솔</b>  <b>황지수 김성혜 배연준 김지수 박주은</b>  <b>김나연 최희라 김지윤 임지현 고계령</b>  <b>박소담</b></p> <p>프로그램북 디자인 <b>허미경</b>  프로그램북 인쇄 <b>미림아트</b></p> <p>기획 총괄 <b>김옥경</b>  프로듀서 <b>김철순 이정민</b></p> <p>제작 <b>EASThug</b>  주최 <b>(재)국립극단</b>  단장 겸 예술감독 <b>김광보</b>  사무국장 <b>오현실</b></p>



〈당클매다〉  
고객만족도조사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최연소 과장도 퇴사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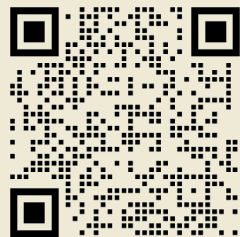
공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괜히 미자에게 마음이 갔다면,  
지금 바로 국립극단 유튜브에서 뒷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관람  
Tip!

영상 곳곳에서 깨알같이 등장하는 국립극단의 풍경도 놓치지 마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시면  
편리하게 국립극단 유튜브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원작 소설 및 연극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나, 작품과는 별도의 콘텐츠로 실제 소설 및 연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꿈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김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 사무국장

오현실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라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 이브 | 박설아 연수단원

##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김철순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프로듀서 | 박소영 연수단원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이정현 김유연 최유영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태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민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 음창민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최은수 연구개발 |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금,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금, 본인 1매 한)

###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http://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